

삼성전기·LG이노텍, ERP 대전환… AI 자율형 기업 시동

(전사적자원관리)

SAP, 나우 AI 투어 코리아 개최

삼성전기, 8.5TB 무중단 이관 성공
비가동 144시간서 34시간으로 단축
LG이노텍, 클라우드 기반 본 구축
보안·효율 놓고 데이터 전략 엇갈려

전자부품 업계가 회사 운영의 중추인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교체에 나섰다. 삼성전기는 공장을 멈추지 않고 전환을 마쳤고 LG이노텍은 본 구축을 진행 중이다.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AI가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자율형 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반 작업이다.

SAP코리아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SAP 나우 AI 투어 코리아 2026'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차세대 ERP 전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삼성전기는 시스템 비가동 시간을 당초 144시간에서 34시간으로 76% 줄이며 제조라인을 멈추지 않고 8.5테라바이트(TB) 규모 데이터를 옮겼다고 밝혔



(오른쪽부터) 얀 번거트(Jan Bungert) SAP 비즈니스 AI 플랫폼 부문 CRO와 박준호 삼성전기 그룹장이 패널토의 하는 모습. /SAP코리아

다. 라인이 서면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이 큰 부품 공장에서 무중단 전환에 성공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이번 전환으로 ERP와 생산관리시스템(MES), 공급망관리(SCM) 등 영역별로 흩어져 있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는 SAP의 차세대 ERP 'S/4HANA(실시간 데이터 처리형 ERP)'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됐다. 새 시스템은 국내의 전 법인에서

가동 중이다.

구축은 삼성SDS가 수행했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는 삼성전기가 맡았다. 데이터는 삼성SDS의 자체 클라우드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에서 운영해 보안을 높였다.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약 35% 줄었고 업무 효율은 25% 이상 높아졌다.

박준호 삼성전기 그룹장은 "ERP 전환

은 심장이식 수술과 같다"며 "국내 성공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조라인 중단 없는 전환을 완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된 주요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 실시간 분석 환경을 구축한 국내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LG이노텍에서는 박준기 차세대 ERP 추진실 실장이 클라우드와 자율형 기업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ERP 여정을 발표했다. LG이노텍은 레거시 시스템을 SAP 기반 차세대 ERP로 전환하는 본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축은 LG CNS가 수행한다. 회사는 지난해 초 차세대 ERP 추진실을 신설하고 전환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환 대상은 SAP의 클라우드형 ERP 'S/4HANA PC E'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데이터 운영 전략은 갈렸다. 삼성전기는 그룹 자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두고 LG이노텍은 SAP의 클라우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망 핵심에 있는 두 부품사가 데이터 보안과 클라우드 효율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택한 셈이다.

이날 행사에서 SAP는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스스로 감지·판단·실행하고 사람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자율형 기업(Autonomous Enterprise)' 전략을 공개했다. ERP 교체 흐름은 두 회사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SAP가 구형 ERP인 ECC의 표준 지원을 2027년 종료하지만 가트너 조사 결과 전체 사용 기업의 약 3분의 2가 아직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 가트너는 2028년까지 기업용 소프트웨어 3개 중 1개에 자율 실행형 '에이전틱 AI'가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기는 공급망 계획부터 실행과 분석, 시뮬레이션까지 AI가 순환 수행하는 '클로즈드 루프' 자동화를 다음 목표로 제시했다. 박준호 그룹장은 "시스템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접근은 반반이 실패했다"며 "사람이 최종 판단에 개입하는 '휴먼 인 더 루프' 기반으로 사람과 AI가 협업하는 체계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KAI, LAH 차질·고환율에 2분기 수익성 '주춤'

2분기 영업이익 18.6% 감소 전망
LAH 납품 지연·환율 상승 부담
KF-21·FA-50 매출 확대 관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올해 2분기 소형무장헬기(LAH) 사업 차질과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 둔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KF-21 초도 양산 물량의 공군 인도와 LAH 납품 정상화, 폴란드·말레이시아 FA-50 사업의 매출 확대가 연간 실적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은 KAI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을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을 6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44.5%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18.6% 감소한 수준이다.



KF-21.

/KAI

2분기 영업이익 감소에는 LAH 엔진 결함에 따른 납품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LAH는 지난 4월 엔진 이상이 확인돼 5월부터 이미 전력화된 기체의 비행이 중단됐으며 일부 납품 물량의 매출 인식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수익성

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공급되는 FA-50은 엔진과 레이더, 일부 무장 등 해외 조달 부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생산 원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국내 완제가 인도 물량 증가가 실적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초도 양산 물량은 3분기부터 공군 인도가 시작되고 4분기에는 인도 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LAH 납품까지 정상화되면 상반기에 반영되지 못한 물량이 매출로 이어지면서 국내 사업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 FA-50PL과 말레이시아 FA-50M 사업도 생산 진행률 상승에 따라 완제가 수출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인

식 규모가 늘고 내년부터 양국에 대한 인도 물량이 확대되면 수출 부문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해외 사업은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KF-21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구매 계약은 없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도 향후 양산기 도입 물량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완제가 인도 일정이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집중된 점도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KF-21과 LAH 인도가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음 분기로 이연될 수 있어 예정된 물량을 제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SDI, UPS 배터리 글로벌 화재시험 통과

삼성SDI의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배터리가 대형 화재 상황에서도 주변 설비로 불이 번지지 않는 안전성을 입증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배터리 공급 조건으로 화재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UPS용 배터리 시장 공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삼성SDI는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 솔루션즈가 주관한 옥내 대형 화재 테스트(Indoor LSFT)에서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14일 밝혔다.

UPS는 정전이나 전압 불안정 등 전력 공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배터리에 저장된 비상전력을 즉시 공급하는 장치다. 서버의 안정적인 가동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에서 핵심 전력 설비로 활용된다.

Indoor LSFT는 UPS 배터리 랙 내부의 모듈을 강제로 전소시킨 뒤 인접한 랙이나 시스템으로 화재가 확산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원관희 기자

LG채널, 37개국·5000개 채널로 글로벌 확장

폴란드 진출로 유럽 17개국 서비스
현지 맞춤형·K콘텐츠 경쟁력 강화

LG전자가 자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LG채널'의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하며 콘텐츠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서비스 국가를 37개국으로 늘린 데 이어 운영 채널도 5000개를 돌파하며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폴란드에 LG채널을 론칭하며 LG채널 운영 국가를 37개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 출시 국가 확대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확장하며, 전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LG채널의 채널 수도 총 5000개를 넘어섰다.

지난 2015년 출범한 LG채널은 LG전자 독자 스마트TV 플랫폼 웹OS의 간판 콘텐츠 서비스로, 각 국가와 지역의 취향

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웹OS를 탑재한 TV는 전세계 2억 7000만 대에 달한다. 폴란드는 유럽 인구 5위 국가로, 스마트 T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 내 LG채널 서비스 국가를 17개국으로 확장한 LG전자는 폴란드 진출을 발판 삼아 중·동부 유럽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LG채널은 폴란드에서 글로벌 뉴스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FAST 솔루션 기업 뉴아이디(NEW ID)사와 협력해 @K-MUSIC, NEW K FOOD 등 K-콘텐츠 전문 채널도 함께 선보인다.

아울러 유럽과 북미는 물론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LG채널을 운영하며 실시간 방송, 영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현지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기선, 英 앤 공주와 조선·함정 협력논의

(HD현대 회장)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방문
상선·특수선 건조 역량 확인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영국 왕실의 앤 공주를 만나 영국의 조선·해양산업 재건과 함정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앤 공주와 남편인 티머시 로런스 경,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을 비롯해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과 주원호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은 앤 공주 일행에게 HD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기술과 사업 경쟁력을 소개하고, 한국과 영국 간 조선·해양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영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앤 공주는 HD현대중공업의 상



영국 왕실의 앤 공주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기술 및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영국 앤 공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 주원호 사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HD현대

선·특수선 건조 현장과 엔진 공장을 둘러보며 선박 건조 및 함정 기술 역량을 확인했다. HD현대중공업과 롤스로이스는 지난 2012년 한국 해군 호위함 사업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BMW, 전기차 라인업 보조금 평가서 '호평'

BMW그룹 코리아가 국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전기차 운행 환경 개선의 노력을 인정 받았다. BMW그룹 코리아는 순수 전기차 라인업이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체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다수 모델이 높은 구매 보조금을 적용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자의 전비와 1회 충전 주행 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효율성과 환경성, 충전 인프라 보급 기여도, 그리고 제조사의 A/S 서비스 네트워크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BMW '더 뉴 iX3'는 성능 보조금과 충전 속도 등에서 만점을 받아 국고 보조금 275만원이 책정됐으며, i4와 i5 등 주요 제품군도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